

The background is a watercolor illustration of a landscape. It features a large body of water in shades of blue and teal, with a small, light-colored island or peninsula in the distance. In the foreground, there are sandy or rocky banks in shades of beige and light brown, with some small, dark, rounded shapes that could be rocks or small bushes. The overall style is soft and painterly, with visible brushstrokes and a gentle color palette.

함께 걷는 독서

신흥중학교 독서토론부

들어가는 글

우리학교에는 책에 관한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모인 독서토론부가 있습니다. 32명의 학생들은 6팀으로 나누어 같은 책을 읽고 매주 1회 모여 책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읽는 독서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힘도 길러갔습니다. 처음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한다는 어색함도 잠시, 점차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독서가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희망하는 학생들의 글을 모아 문집을 만들었습니다.

‘책에는 힘이 있다. 시대를 초월한 오래된 책에는 큰 힘이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책과 함께 마음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길을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4. 11. 사서교사 최민경





함께 한 우리들

1학년

김지훈(106), 김형준(101), 송지완(105)

2학년

강태린(202), 김유신(201), 김재용(202)

양진서(201), 이광국(201), 이민준(202)

이정훈(201), 최준우(203)

3학년

김민석(302), 김시호(303), 박준영(304)

박해준(301), 서병규(304), 송지후(304)

정회창(304), 최태원(304)

1학년

김지훈 김형준 송지완

1학년 김지훈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클레이하우스

이 책은 주인공인 영주가 서점을 차리고 가꾸어 나가는 이야기이다. 글의 초반에서 영주는 서점의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 매출, 책 소개 및 구입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민철이, 승우작가, 민준 등을 만나며 좋은 방향으로 서점을 운영해나가는 인물이다.

이렇듯 영주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나는 글을 읽으면서 영주와 함께 서점에서 일하는 민준이가 좀 더 기억에 남았다. 민준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의미없이 지내다 영주가 낸 바리스타 광고를 보고 서점에서 일하게 된다. 민준이 친구와 한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73쪽 “옷이 있는데 한쪽엔 고급 단추들이 자르륵 달려 있어. 그런데 반대편엔 구멍이 없는거야. 왜냐고? 아무도 구멍을 뚫어주지 않았거든. 그러니 내 옷을 봐. 볼썽사납게 첫 단추만 꿰여 있는 거지.”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의 의미를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랬던 민준이 휴남동 서점에서 일하면서 달라진다. 바리스타로 휴남동 서점에서 일하며, 초반부 조용하던 모습보다 영주나 커피업체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달라지는 민준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휴남동 서점처럼 바쁜 마음에 휴식을 주는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학년 김형준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현대지성

<걸리버 여행기>는 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이야기다. 주인공 걸리버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는 모험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각 나라의 특성을 통해 인간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소인국에서는 소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사소한 일로 싸우고, 정치적인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 이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이기심과 비극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거인국에 가면 거대한 사람들을 만난다. 걸리버는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육체적 크기와 마음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한다. 이 부분은 사람의 가치가 크기에만 있지 않다는 걸 알려준다.

라퓨타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섬에 사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 주민들은 과학과 이론에만 관심이 많아서 현실 문제를 잊고 살아간다. 이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과학이나 기술에 너무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후이눔에서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말들이 나온다. 이 말들은 아주 똑똑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지만, 인간은 감정과 욕망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다. 여기서 작가는 인간 본성의 복잡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1학년 송지완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클레이하우스

독서토론부 1학기 때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소설은 너무 과한 내용이 많아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책은 생각보다 이해도 잘되고 재밌는 얘기도 있어서 잘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힐링소설이며 서점 내 많은 일들을 알려주는 소설입니다. 조용한 동네의 서점에 알바생 민준, 영주, 커피로스팅 대표 지미, 단골손님 정서, 작가 현승우, 민철엄마와 민철이, 책벌레 등 오고가는 인물이 각자의 사연을 만들어 갑니다.

“하루 중 이 시간만 확보하면 그런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인간은 복잡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면에선 꽤 단순해. 이런 시간만 있으면 돼, 숨통 트이는 시간, 하루에 10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 살아 있어서 이런 기분을 맛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시간”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서점에 모여 책을 읽는 곳이었습니 다. 그렇게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은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알게 해주는 것 같았기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영주는 민준을 직원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책임감을 위해 이 곳 휴남동 서점에서 북토크, 독서모임, 재능기부, 글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서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손님들은 영주와 민준의 진심을 알고 하나, 둘 서점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책과 분위기가

있는 서점으로 유명했으며 영주와 민준의 생계걱정은 덜게 되므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갑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휴남동 서점은 그대로였으나, 작은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민준은 바리스타의 성취감, 행복을 느끼며 직원으로 채용됐고 휴남동 서점 안에서 커피를 만듭니다. 휴남동 서점 단골손님 성수도 휴남동 서점의 2호직원으로 채용되어 마음껏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유럽여행을 다녀온 민철은 다른 가게의 알바생이 되어 자신이 원하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중이며, 홀로서기를 진행하는 지미와, 정서는 여전히 영주의 휴식 친구로 곁을 지켜주며, 한달간의 독립여행으로 독립방 책들을 연구해온 영주는 영주만의 생각으로 색깔과 다양한 개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듯 여전히 책 속에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삶을 꺼내주었고 서점과 함께 변화하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순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력하는 만큼 방황한다고 합니다.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지금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영주는 말합니다 “살다보면 일단 살아봐야 그 생각이 맞는 지 틀린 지 알게 되며 그러니 방황하더라도 일단은 선택하고 살아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2학년

강태린 김유신 김재용
양진서 이광국 이민준
이정훈 최준우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는 현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여름에 내린 많은 양의 비와 정말 더운 날씨로 인해 생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극, 고위도 지역의 급속한 온난화로 인해 영구동토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녹으면 영구동토층의 위에 있던 사체 등이 분해되지 않고 보존되는데 이런 과정이 수만년간 쌓여왔기 때문에 안에 있던 엄청난 유기탄소가 밖으로 배출될 것이고 지구온난화는 훨씬 더 증폭될 것이다.

다음으로 식량난과 펜데믹을 다룬 부분을 읽으면서 지구온난화가 식량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마나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 음식값도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농산물 품귀현상이 일어나 채소의 값이 50% 이상 오르고 육류의 값도 kg당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굶는 인구가 늘어나고 농업 종사자들이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부르는 피해는 이처럼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식량난과 엄청난 홍수, 가뭄 등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은 육류를 주로 소비

를 하는 습관을 바꾸어서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한다. 그리고 기업은 화석연료 중심 연료사용을 줄여나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속가능성있는 재생가능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기술을 현재보다 효율적이게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는 화석연료보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장려하여 에너지 발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정책을 마련하여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학년 김유신

마녀와의 7일,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오늘 독후감에 쓸 책은 <마녀와의 7일>이란 책이다. 이 책은 내가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며 읽었던 책으로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라플라스' 시리즈 중에서 3권이다. 과학SF추리소설 분야로 평소에 좋아하는 장르가 다 들어간 책이라 굉장히 즐겁게 읽었다.

책의 배경은 근미래, 지금보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중학생 쓰기자와 리쿠마와 그의 친구 준야가 우하라 마도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를 만나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리쿠마와 마도카가 범인을 찾아가는 중에 여러 경험을 하며 범인을 잡는 이야기이고 형사의 눈을 피해 조사를 하다 결국에 협력하고 같이 범인을 잡는게 꽤 흥미로웠다.

'게놈프로젝트'라고 인간의 유전자를 지도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위험성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 경찰은 항상 시민의 편, 정의라는 생각을 뒤집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전과자의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전과자와 DNA를 대조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 원칙대로라면 전과자의 DNA만 채취해야 하지만 몰래 사건현장에 버려진 담배꽂초와 병들을 챙겨 평범한 일반인의 DNA도 채취하는 등 여러 좋지 않은 모습을 그렸다.

범인은 바로 DNA부서 팀장 이바로 DNA를 통해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게놈 몽타주라는 기술을 통해 과거 T초 살인사건이라는 살인사건에 범인을 형상화하여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이 자를 잡아 달라고 하였지만 그 얼굴에서는 삶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였고 결국에는 범인을

잡았지만 사실은 진범이 아니였고 주인공에 아버지가 T초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으려해 경찰의 행적이 잘못된것이 드러날까바 두려웠던 이바가 주인공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었다.

책을 재미있게 읽어서 전작인 <라플라스의 마녀>도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괜찮게 읽었다. 추천하자면 일단 <라플라스의 마녀>를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하고 추리보다는 과학SF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별점을 부여하자면 5점 만점에 4.5점 정도이다. 이유는 다 괜찮았지만 메인 빌런인 이바의 비중이 너무적고 이바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느낌이라 그렇다.



2학년 김재용
리버보이, 팀 보울러, 다산책방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독서동아리 활동때 각자 읽고 싶은 책과 읽고 싶은 이유를 말한 적이 있었다. 여러 의견이 나온 도중에 민준이가 이 책 <리버보이>의 줄거리와 표지를 보여주면서 소개를 해주어 이 책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제스라는 15살 아이와 할아버지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쓰러져서 입원할 정도로 위급했지만 가족에게 방해될까봐 퇴원을 하였다. 제스는 어느날 수영하다가 리버보이를 만나고 함께 바다로 가자는 부탁을 받지 않았다.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와보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였다. 제스는 할아버지의 유골을 리버보이가 다이빙했던 계곡에 뿌리고 그 계곡에 다이빙을 했다.

마지막에 제스가 항아리를 기울여 유골을 발원지에서 솟는 물 위로 흘려 보내고 유골을 뿌린 강에서 “안녕 리버보이”라고 하고 수영하는 장면이 리버보이(할아버지)를 강물에 보내면서 같이 수영하는 것 같아서 몽클하고 인상깊었다.

2학년 양진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치조 미사키, 모모

이 책은 제가 평소에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생각해보지 않던 것들 중 첫째는, 평범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점이었습니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히노는 아무리 행복한 기억이 있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잊는데요. 이런 히노의 모습이 저에게 평범한 생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했던 추억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히노의 병이 나은 후 가미야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온갖 방법을 쓰면서까지 기억해내려 하는 히노의 모습이 제게 옛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동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삶은 추억들을 동력으로 삼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예전의 저를 성찰할 기회가 되었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작은 것들에도 항상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상들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책에 대해 친구와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에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반전을 좋아하거나 깊이있는 로맨스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씩 꼭 추천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담인데, 저는 책의 중요한 사실을 스포 당한채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포따위 잊어버릴만큼 흥미진진하고 깊이있는 책의 내용 덕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읽는 것과 다름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학년 이광국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치조 미사키, 모모

이 책은 독서동아리에서 읽게 된 책으로,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제가 이 책을 읽고 책을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독후감을 적기로 하였습니다.

줄거리는 가미야 도루(남주인공)의 시점으로 시작해서 히노(여주인공)를 만나 계약 연애를 시작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히노의 친구인 와타야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루는 히노의 기억장애에 대해 알게 되고 다음 장은 히노의 시점으로 하루가 다시 시작합니다.

히노의 기억은 사고 당한 날에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히노는 일어날 때마다 놀랍니다. 어찌저찌 팻말과 노트를 보고 안정을 찾고 연인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도루와 함께 헤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와타야와 도루, 히노는 점점 더 친해집니다. 도루와 히노는 더 이상 계약 연애가 아니라 진짜 연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루는 어머니처럼 심장병이 나타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듣게 됩니다. 이것을 도루는 와타야에게만 말하고 혹시 죽게 되면 히노의 기억 속에 자신을 지워 달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루는 죽게 됩니다.

히노는 처음에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억 장애가 조금씩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루에 대해 조금씩 기억하게 되고

슬퍼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와타야와 히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둘이 얘기를 하며 끝이 납니다.

일단 책은 여러 인물의 관계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많이 생략해서 그렇지만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내용 연결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느낀 이유는 초반에 도루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넘기듯이 말하는데, 그걸 도루가 죽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다니.. 라고 생각 하며 내용 연결이 좋다. (떡밥 회수 잘한다.)라고 생각 했습니다. 초반 내용 특히 마지막의 반전 크...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도루를 잊으려는 와타야, 도루를 기억해 내려는 히노의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뜬 말이긴 한데 후속 권에서 나오는 말이나 상황도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책 제목을 보자마자 궁금증이 생겼다. 리버보이는 누구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리버보이>는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제스는 수영을 좋아하는 15살의 당차고 밝은 소녀이다. 그러나 그녀의 버팀목인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후부터 할아버지가 걱정되기 시작한다.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기력을 되찾고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본인의 고향으로 떠나게 된다. 그 곳에서 할아버지는 ‘리버보이’ 라는 그림을 완성하고자 했고 제스는 강에서 우연히 신비한 소년을 만나게 된다. 그 소년은 제스에게 사람의 일생은 마치 강과 바다와 같고 죽음은 아름답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제스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며 아름답지 않다고 한다. 그러다가 제스는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단순 강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어렸을 적, 즉 제스가 만난 소년인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제스는 할아버지의 유골을 강에 흘려보내면서 이별을 받아들인다.

책을 읽으면서 “강물은 알고 있어. 흘러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무엇을 만나든 결국에는 아름다운 바다에 닿을 것임을.”이라는 문장과 강을 사람의 일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제스와 할아버지의 각별하고 애절한 사랑이 느껴졌고, 할아버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제스와 함께 끝까지 그림을 완성하려는 의지에 울컥했다. 할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스가 느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아직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없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책을 통해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강물이 흘러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강물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2학년 이정훈
과학이 필요한 시간, 궤도, 동아시아

궤도가 쓴 <과학이 필요한 시간>은 우리가 쓰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 배경과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내용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 과학기술로 인한 인간의 한계 극복, 옛날부터 인간이 우주 연구를 시작한 기원, 특수 상대성 이론과 열역학의 필요성, 현재까지 풀리지 못한 수학 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2장에서 뇌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알츠하이머 병이란 치매의 일종으로 뇌의 기억 전달 부분인 시냅스를 손상시키는 병이다. 주로 노화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과거 20세기에서 이 병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수녀원에서 고령의 수녀들에게 실험을 진행했다.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85세의 고령인 수녀는 인지시험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고 일상생활에서 두뇌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많은 학자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죽은 뒤 학자들이 뇌를 꺼내어 해부해본 결과 그녀의 뇌 속에는 알츠하이머 병이 이미 심각한 말기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공부를 반복하고 생각하여 기억을 뇌로 더 많이 전달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기억을 전달하는 시냅스의 부분이 일반인들의 비해 매우 복잡하고 단단하게 형성되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타격이 거의 없던 것이었다. 이는 비슷하게 성적이 우수했던 고령의 수녀들에게도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반복된 학습이 뇌를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것에 흥미를 느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우리 사회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과학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이 책의 제목인 과학이 필요한 시간을 더 많이 찾게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서 과학기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학년 최준우

나는 조선의 소년 비행사입니다, 한정영, 다른

이 책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을 배경으로, 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조안이 비행사가 아닌 정비병으로 전쟁중인 일본에서 생활하던중 조안은 비행사가 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신의 역할이 특공(전쟁에서 지고 있는 일본에 전략으로 비행사가 직접 전투기를 미군 배에 부딪쳐 일격을 가하는 공격 방식)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지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자신의 꿈인 비행사 두 선택지를 고민 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조안은 자신의 꿈인 비행사를 선택하여 마지막 비행에서 결국 조안은 전투기와 함께 눈을 감게 되는 눈물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인 비행사를 향한 주인공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나도 저렇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뻐다.

“그래서 특공으로 죽는니, 차라리 활주로에서 총을 맞아 죽기로 한 거야?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이래 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야?” 이 문장은 이토 준야라는 소대장이 ‘특공’이라는 임무를 받은 조안에게 전하는 문장이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괜히 걱정하고 불안감에 휩싸였었던 나에게 확! 와닿고 심금을 울리는 문장이였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인상 깊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힘든 상황이 와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꿈을 향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



3학년

김민석 김시호 박준영
박해준 서병규 송지후
정희창 최태원

3학년 김민석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현대지성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 소설을 넘어 당대의 사회와 인간 본성을 풍자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책은 주인공 걸리버가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각 나라는 그 자체로 상징적이며, 인간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소인국에서 걸리버는 자신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권력 다툼과 정치적 분열을 풍자하며 작은 문제로도 큰 갈등이 일어나는 인간 사회를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적 이슈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인국에서는 자신이 소인처럼 작아지며 권력의 상대성과 인간의 자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중 부유하는 섬인 라퓨타에서는 인간의 지나친 이성주의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가 초래하는 문제를, 이성적인 말들이 지배하는 나라 휴이념에서는 인간이 과연 이성적 존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단순히 모험이 아닌 인간 사회와 본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풍자 소설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나라는 말들이 지배하는 나라 휴이념으로, 휴이념에선 인간이 야후라 불리며 말들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인간보다 인간 같은 말과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설정이 인간이 정말 이성적인 존재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소인국, 거인국, 라푼타, 휴이념 중 한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면 소인국이 가장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많은 위협을 피해야 하며 언제나 목숨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걸리버가 경험하는 각각의 여행은 당대뿐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시대를 초월해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 김시호
리버보이, 팀 보울러, 다산책방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제스라는 소녀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다.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신비한 소년 리버보이의 이야기이다.

<리버보이>에서는 삶과 죽음을 다룬다. 제스의 할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제스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아서 “죽음은 아름답지 않아” 하는 장면에서 리버보이는 “죽음이 아름답지 않은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 아름답지 않은 거야”라고 말했다.

책에서 죽음과 강을 연관 짓는데 나 역시 삶을 강에 비유해본 적이 있다. 어릴적 갑자기 강과 죽음을 연관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강은 끝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나는 지점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의 삶 역시 아주 길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게 강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책에서 리버보이가 죽음은 아름답다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 난 그 말을 들으며 왜 죽음이 아름답다 할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죽음으로써 생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별이 아름다운 것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스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보였는데,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아버지만 불러서 귓속말로 무슨 말을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데, 내 생각에는 그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 같다.

리버보이는 할아버지의 과거이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녀를 위해 이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떠났다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작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해준 것이 아쉬워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말한다. 작가의 말을 듣고 나도 평소에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말하지 않고 후회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말하기로 마음 먹었다.



3학년 박준영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웨인 다이어, 토네이도

국어 선생님께서 방학동안 읽고 싶은 책이 없냐고 물어보셔서 읽기 시작했던 책이 있습니다.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하고, 국어 선생님이 사 주신다 하셔서 신중하게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웨인 다이어라는 작가가 자신이 공부하고 느낀 죽음에 대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글들은 그저 가끔 술 마시고 들어오셔서 하는 아버지의 잔소리와 비슷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고생하지 말고 당장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하루라는 시간을 버리지 말라고 저에게 적절하게 마음 속에 모닥불처럼 말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어쩌면 10대에겐 그저 재미없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에 담은 이야기는 그저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대에게 제일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고생하지 말고 흘러보내라.” 이러한 말은 생각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건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에는 어떤 친구와 친했지만 올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은 저 자갈을 싣고 가고, 내일은 물고기와 함께 흐르기도, 어느 날은 그저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흘러가고 어느 날 새로운 친구와 함께 다니는 것 같이 인간관계는 그런거라고 이 책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 박해준
리버보이, 팀 보울러, 다산책방

병에 걸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와 손녀 제스의 가족들이 할아버지 고향에 마지막 이별 여행을 가면서 시작된다. 할아버지는 병에 걸려 아픈데도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그림 ‘리버보이’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제스는 강에 수영하러 가면서 신비로운 소년 리버보이를 만나게 된다. 제스는 조만간 할아버지와 이별을 할 생각에 부정하지만 신비로운 소년 리버보이를 만나면서 점점 할아버지의 이별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숙해지는 성장소설이다.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 몸이 좋지 않은데도 병원에 가야 한다는 가족들의 말에 거절하며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리버보이’에 집착하는 장면이 많은 것을 보면 왜 할아버지는 리버보이에 집착 할까 라고 생각했다. 이 책을 다 읽고 생각을 해보니 할아버지는 리버보이를 완성 시킴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손녀 제스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제스가 바다에 도착하면서, 전엔 못 믿었던 리버보이 가 한 말인 “삶은 항상 아름다운 건 아냐. 강은 바다로 가는중에 많은 일을 겪어. 돌부리에 치이고 강한 햇살을 만나 도중에 잠깐 마르기도 하고.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법은 없어.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래야만 하니까. 그리고 바다에 도달하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를하지. 그들에겐 끝이 시작이야. 난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를 떠올리며 ‘죽음은 삶의 과정일 뿐이고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라고 깨닫게 된다. 제스는 할아버지와 이별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읽으면서 나도 죽음에 대해 부정적이고 나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긍정적이게 바뀌었고 누군가와 이별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리버보이’는 결국 할아버지의 자화상이었다. 처음에는 강만 그려져 있는 줄 알았지만, 알프레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리버보이는 단순한 강의 그림이 아닌 할아버지의 자화상이었다. 나는 이장면을 읽으면서 리버보이라는 작품은 제스에겐 인생의 교훈을 할아버지에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 하는 것 같았다.

3학년 서병규
나의 MBTI가 궁금하단 마리몽, 김소나, 더모던

이 책은 MBTI 성격 유형에 대해 알려주며, 각 유형의 특성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되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유형의 장단점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주어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속한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MBTI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주었고 이 책을 통해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수 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MBTI가 궁금하단 마리몽>은 성격 유형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책으로, 성격 유형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 알고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3학년 송지후
리버보이, 팀 보울러, 다산책방

삶과 죽음, 그 경계에서 만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멈추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든다. 리버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책을 읽는 내내 나는 마치 잔잔한 강물에 몸을 맡긴 듯, 문장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 책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 인간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여정이자, 죽음과 대면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는 서사이다.

주인공 제스는 할아버지와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난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다. 제스의 할아버지는 심각한 병에 걸려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고, 제스는 그런 할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스가 겪는 감정의 파도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할 법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제스의 눈과 마음을 통해 전달되었다.

'강'이라는 소재는 이 소설의 중심을 이룬다. 강은 시간이기도 하고, 인생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강 위를 흐르는 소년, 리버보이. 이 소년은 제스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다가오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문들과 맞닿아 있다. 리버보이를 보며 제스는 무언가를 깨달아간다. 그 깨달음은 곧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다. 인생이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는 얼마나 큰지 말이다.

제스의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그림을 완성하려 한다. 그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다. 그의 삶, 그의 사랑, 그리고 그

의 고집이 담긴 인생의 집합체다.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삶을 완성하는 것과 같았다. 이 장면에서 나는 한 인간이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지를 느꼈다. 할아버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지막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자신이 떠나기 전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도 죽음이 삶의 일부임을,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려준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그 죽음은 제스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제스는 그가 남긴 그림처럼 자신의 삶을 그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과정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제스가 강에서 만난 리버보이는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본질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 소년은 언제나 제스에게 다가갈 듯, 그러나 닿지 않는 거리에 있다. 마치 우리가 평생을 걸쳐 찾고자 하는 삶의 의미처럼 말이다. 그리고 결국 그 의미는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여정 속에서 서서히 발견되는 것이다.

이 소설을 읽으며 떠올랐던 것은 삶이란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이들과 얹혀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제스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가 겪는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과 맞닿아 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그림은 우리 모두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기억,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배운 삶의 방식이다.

리버보이는 잔잔하게 다가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제스는 할아버지를 잃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끝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리버보이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강을 건너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인생의 흐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리버보이는 단순한 성장 소설을 넘어,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리버보이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한다.

3학년 정희창

나의 MBTI가 궁금하던 마리몽, 김소나, 더모던

<나의 MBTI가 궁금하던 마리몽>을 읽으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어떠한 점이 재미있었냐면 여러 사람들의 성격이나 생각하는 점의 차이가 있는데 ENFP는 발랄하고 공감을 잘해줘서 친구가 많고 반대로 INTP는 소극적인 모습이 있고 공감을 잘못해서 친구가 적을수도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고 공감가는 부분도 있었다.

재밌는 점은 더욱 있는데 그것은 F와 T의 차이이다. F와 T의 차이의 유명한 구분법이 있는데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말했을 때, F는 왜 우울한지 물어보고 T는 어떤 빵을 샀는지 물어본다고 한다. 이렇듯 F는 감정형으로, T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나의 MBTI가 궁금하던 마리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MBTI는 신통방통하구나 라는걸 알게되었다.

3학년 최태원
아몬드, 손원평, 다즐링

<아몬드>를 읽고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이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평범한 사람이라면 슬퍼하겠지만 주인공은 감정을 못느껴서 무덤덤하게 다른사람들과 달라 놀랐습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 윤재는 태어날 때부터 편도체가 아몬드처럼 작아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르쳐 주려고 엄마가 색종이로 감정을 알려주면서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곤이는 윤재가 일하는 책방에 찾아와서 조금씩 친해집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내용은 처음에는 싸우고 사이가 안좋았던 곤이와 윤재가 조금씩 친해지는게 아무리 싫은 상대여도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면 친해질 수 있다는게 신기했습니다. 윤재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도 점점 조금씩 친해지고 사람들을 만나 성장하는 모습이 마치 내 모습과 비슷해서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도 재밌는 대화 같은 걸 하면 친구가 되는게, 친구는 특별한 이유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다는걸 깨달았습니다.

